

사진 : 최선영 로시리아(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제1독서 이사야서 66, 10~14ㄷ

화답송 시편 131(130), 1, 2, 3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1.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2.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떴던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습니다. ◎
3.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2독서 코린토 1서 7, 25~35

복음환호송 마태 11, 25 참조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오 18, 1~5

영성체송 마태 18, 3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파티마100주년기념 국제순례성모상 전국순회 피날레 감사제

일시/ 10.13(금) 10:00~16:00

장소/ 부산 강서실내체육관

10:00 묵주기도

12:20 뮤지컬 <파티마, 희망을 노래하다> 무료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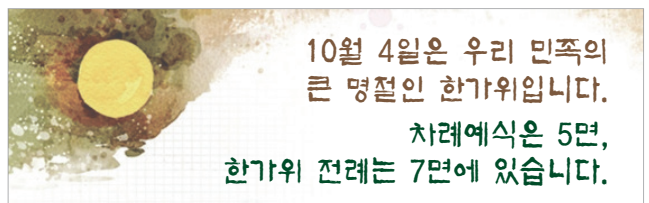
14:00 한반도평화통일 기원미사 : 손삼석 주교 및 사제단

문의 : 646-3746, 635-3854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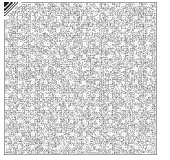


*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미리 연락해주시고 장백의와 영대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자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마태 18, 3~4) 하십니다. 부모 없이는 성장하기 힘든 나약하고 부족한 어린이처럼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사람이라고... 곧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고, 자신을 낮추어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린이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작은, 그래서 어머니

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 어머니의 사랑에 완전히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어린이 같은 겸손한 사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한 사람이며,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생각을 바꾸어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아기 예수의 테레사는 소박하고, ‘아주 작은 자’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듯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복음적인 사람이었으며 철저히 주님께 의탁한 어린이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는 2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일상의 단순함과 겸손의 자세로 작은 일에 충실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늘 첫 마음으로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 순수함이 바로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녀께서는 “나의 천국은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니, 나의 천국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올 형제자매 여러분!

겸손의 모범이신 주님을 본받아 ‘아주 작은 자’로 살아가신 ‘아기 예수의 테레사’처럼 우리 모두 어린이가 됩시다. 겸손하고 착한 어린이가...



박명제
베네딕토 신부
덕계성당 주임

벼꽃 같은 당신들



그래, 꽃 없이 열매 어디 있을까.
모내기 하면 가을에 절로 낱알 영고는 줄만 알았지
벼에도 꽃 핀다는 걸 이제 알았네.
화려한 꽃도 많고 한 철 내내 피는 꽃도 있더라만
쌀알보다 작은 그 꽃 못 본 사람도 많다지.
너무나도 짧게 피었다 저서
농부조차 모르고 지나기도 한다지.
얼마나 많은 꽃이 저서
이 한 그릇 밥이 되었을까.

글·그림 : 이영 아네스 수필가

지금까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0.2(월)~3(화)
박명제 신부(덕계성당 주임)
10.4(수)~7(토)
김덕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차장)

문자참여
#2340

추석연휴 소환특집
〈신부들의 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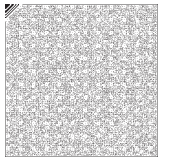
그리운 사랑들, 추억 이야기,
그때 그 노래를 소환합니다!

10.7(토) 13:00~14:00

출연 : 홍영택, 김병희, 김수환 신부
특별 게스트 : 인상현, 표용운 신부

★ 휴대전화기에 <팟빵>앱 다운로드해서
언제는 팟빵으로 <신수다> 들으세요!

www.podbbang.com



김민영 로사리아

우리 양정성당은 본당 설립 60주년을 기념해서 60가지 행사를 계획하였는데, 청년 레지오 설립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보좌신부님도 주임신부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젊은이들만 보면 막무가내로 레지오 가입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도 신부님의 권유로 레지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청년들로 구성된 사랑의샘 브레시디움(2017.3.11 창단)의 창단 단원으로 레지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반강제로 가입한 거라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컸었습니다. 매주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것과 기도를 드리는 것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 나오신 단장님과 부단장님께서 기도와 활동이 부족하여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서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셔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모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신 단장님과 부단장님 덕분에 사랑의샘Pr.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국제 순례 성모상 순회기도를 드리러 푸른군대 본부에 다녀왔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레지오를 하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성모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으로 혼자 갔었습니다. '아베마리아'를 부르면서 손수건을 흔들며 성모님을 맞이할 때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성모님의 자애로우신 표정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성모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비신자였을 때는 신자들이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던 경험이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을 뵙고 나니 다가오는 단원 선서가 신경쓰였습니다.

신부님의 당부도 있었지만 선서할 때 실수를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서 몇 번이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선서문을 낭독하고 신부님의 안수를 받을 때 성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 떨리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레지오를 시작하게 된 것은 신부님을 통해서였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상관없이 습관처럼 선행함으로써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곁에 머무르시며 위로를 해주시는 성모님께 대한 보답으로 기도하며 공경해서 하느님 흠숭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원이 되길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교본 p.38 5장 참조) 아직은 작지만 어제보다 내일이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샘 브레시디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양정성당**



작은 꽃들의 합창

도심 공동화현상 때문일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되지 않는다. 그 외중에도 조금씩 학생이 늘어나더니 이젠 인원이 제법 많다. 초등부 삼학년에서부터 고등부까지이지만 40여 명 넘게 모여 여름신앙캠프에 참여를 한다. 꼬맹이들은 말귀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에 그들만의 신나는 시간을 갖고 싶을테고, 고학년들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누리고 싶으려면 서로 투덜거리지 않고 함께 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더 불어 학기 초부터 교사들과 수녀님이 정성을 모아 준비를 하더니 제법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으니 흐뭇하다. 여름이 되면서 매일 저녁에 모여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의 실행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무더위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튼 정성을 다하는 교사들의 마음이 가늠하고 고마울 뿐이다.

캠프 준비와 기도를 위하여 학생들이 모인다. 개학 직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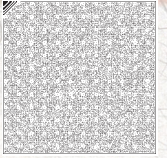
라 그 무덥던 더위는 피해서 다행이다. 모임 첫날에는 서로 말도 잘 통하지 않을 꼬맹이들과 덩치 큰 녀석들이 한 조가 되어 있으니 서먹해 한다. 그도 잠시뿐, 두 번째 만남부터는 꽤나 친숙해 보인다. 캠프를 시작할 때에는 조별로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다. 저학년들은 참새처럼 조잘대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고학년들은 그런 동생들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기며 각자가 맡은 일에 적극적이다.

Oh, My God! "말씀과 성사를 통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신앙캠프에 어쩌면 그리도 열심히 보는 이들이 기쁘기 한이 없다. 몸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열정적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잘도 소화한다. 저녁에 갖는 교리와 전례 시간에는 독창성과 더불어 진지함이 묻어난다. 모두 선생님들의 열정과 아이들의 해맑음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어렵과 젊음이 멋진 합창처럼 잔잔하게 다가온다.

■ 김명선 신부(전포성당 주임) johnkms@hanmail.net

한가위 차례(茶禮) 예식

천주교 가정 제례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5조 1항 참조)



준비

1. 마음과 몸의 준비 :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갖춘다.
2. 상차림 :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음식상을 차릴 때에는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시작 예식

성호경

시작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시작기도

十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께 조상님들과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절에 참여합니다.

(잠시 침묵 후에)

十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를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 예절

성경 봉독

마태 5, 1~12, 요한 14, 1~14, 로마 12, 1~21, 1코린 13, 1~13, 에페 5, 6~20, 요한 15, 1~12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의 말씀

가장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면서 가훈, 가풍,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추모 예절

분향과 배례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위령 기도

긴 위령 기도를 바치거나 노래로 부를 때에는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참조한다. (가톨릭 기도서 P.74~79)

마침 예식

마침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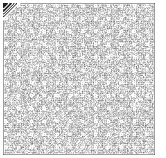
성호경

음식 나눔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교의 대화 시간이 되도록 한다.



김범우순교자성지, 교육관 및 피정의 집 축복식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축복식에 참석했다.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는 사랑의 표지이다.”며 “그리스도께서 깨우쳐주신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건 신부는 “이곳이 김범우 순교자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관 및 피정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4일(목) 한국교회의 첫 순교자인 김범우 토마스가 순교한 지 230주년이 되는 날에 ‘김범우 순교자성지(담당 : 한건 신부) 교육

관 및 피정의 집’ 축복식이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날 송기인 신부를 비롯한 동료 사제, 수도자, 평신도 350여 명은

연양성당, 죽림굴 발견 31주년 기념미사

순교자 성월을 맞아 연양성당(주임 : 계만수 신부, 김현 신부, 회장 : 박경민 안드레아) 신자들은 지난 9월 9일(토) ‘죽림굴 발견 31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간월산’에 위치한 죽림굴(대재공소)은 국내 유일한 천연 석굴공소이며, 기해박해(1839년) 이후 충청도 일원과 영남 각처에서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 공소로 사용된 곳이다. 또한 경신박해(1860년) 때, 최양업 신부가 이곳에서 약 4개월간 은신하며 미사를 집전하였고, 1860년 9월 3일자로 된 그의 마지막 서한을 남긴 곳이기도 하다.



삼계성당,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9월 17일(일)
주임 : 이성주 신부, 회장 : 윤종규 요셉



온천성당
주임 : 박상대 신부



하늘의 문 Pr. 2,000차 9월 13일(수) / 단장 : 이정학 요셉
바다의 별 Pr. 2,000차 9월 22일(금) / 단장 : 이연옥 아나다시아

축하합니다!



습기를 읽다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얄밟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왜 습의 친구들을 야단치실까요?

습기는 시작부터 습이 흠 없고 울긋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습의 고통은 습의 의로움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 간계 때문임을 밝힙니다. 그런데도 습의 친구들은 습의 고통이 습의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죄가 없을 리 만무하며,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차라리 습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고 동참하며 아파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습의 불의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느님께 “습처럼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며 야단맞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습도 야단치십니다. 피조물인 습이 하느님의 신

비를 알지도 못하면서 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습이 올바른 것을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습기 42, 8) 왜냐하면 습은 마지막까지 하느님에게서 길을 찾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은 하느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의 길을 걷습니다. 사실, 습은 마지막에도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습은 하느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본래의 의로운 모습을 회복합니다. 이런 습에게 하느님은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습기는 이처럼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서 길을 찾는 이를 두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그 의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신학생 부모 피정

· 10.29(일) 10:00 · 교구청 2층 성당
 회비: 1만원 /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필기도구
 입금: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신청: 10.20(금)까지 팩스(629-8764)
 문의: 629-8760(성소국)

10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10.15(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 10.22(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본 당

정관성당 학부모 특강

· 10.14(토) 20:00 / 문의: 727-8868
 주제: 자녀의 학업성취와 신앙생활
 강사: 오성배(동아대 교육학과 교수)

반송성당 관리장 구함

자격: 운전면허(1종보통), 기타 기능자격증소지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문의: 542-1530

해운대성당 사무원 구함

제출서류: 본당신부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PC(한글, 엑셀) 사용 가능자 / 문의: 746-5881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 미사

10월 김해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문의: 782-0765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0.7(토), 10.8(일) 14:00	부산 북곡동 본원	010-9319-1690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10.8(일) 14:00	광안동 본원	010-8551-3312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원하는 시간에	대구 계산서원 칠곡 본원	010-3113-6219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영상과 음악이 있는 묵주기도 100단
 · 10.2(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첫금 철야 첫토요 신심미사

철야: 10.6(금) 21:30 / 내용: 로사리오의 밤
 신심: 10.7(토) 11:00 - 생명 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아기봉헌 및 갱신 있음(사전접수)
 · 푸른군대 경당 / 문의: 646-3746

지체장애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변경

10.3(화)→10.17(화) 변경됩니다
 문의: 517-0613, 010-3660-2636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10.13(금) 행사 관계로 월미사 없습니다
 문의: 010-2428-5785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6층, 7층)

용도: 사무실(6층 15평, 7층 20평)
 문의: 462-1870(행정실)

제22기 인문고전대학 개강

개강: 10.10(화) 19:00 가톨릭센터
 과정: 매주 화, 수, 목 강의(10주간)
 화: 침묵의 철학, 선 - 김미숙
 수: 신화와 문학의 기억 - 안수현
 목: 서양 미학과 예술의 원리적 이해 2 - 김창준
 문의: 510-0554(인문학연구소)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2017년 공개채용

모집부문: 아나뉘서(아나운서 겸 PD), PD
 마감: 10.9(월) 17:00 / 문의: 600-8800
 홈페이지(www.pbcbcs.co.kr) 참조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성명(본당,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
 (자세히), 제대일 / 활동: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 10.6(금) 휴회(추석)
 - 짧은이 성령기도
 · 10.2(월) 19:30 전포성당
 · 10.4(수) 울산대리구 휴회(추석)
 - 수요치유기도회: 10.4(수) 휴회(추석)
 - 28기 성령목상회 심화과정 2단계 2차 교육
 · 10.15(일) 10:00~16:00
 회비: 1만원 / 미사, 필기도구 지참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10.5(목) 휴회(추석)
 - 100단 묵주기도(미사 · 안수) / 점심 제공
 · 10.16(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해양사목 외국선박 방문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화, 금요일 14:00~17:00 / 문의: 469-7658
 조건: 외국어 회화 가능(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시각장애인선교회, 큰빛 직원 구함

사회복지사(PC, 운전가능자) - 일~금 근무
 마감: 10.12(목) / 문의: 464-3909(사회복지법인큰빛)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464-3909

오른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월, 금 14:00~15:30 / 문의: 515-0030

부산교구 하늘 공원
 공원묘지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0.4(수) 11:00 · 봉안당 내 경당
 ▶ 추석 당일엔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
 ※ 운영 시간: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부산가톨릭대학교 영어미사
 | 기간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 5시 10분
 10/10, 10/24, 11/14, 11/28, 12/12
 |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401호 성당
 | 대상 영어미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510-0508(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

노인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간: 09:00~12:30, 13:30~17:00
 장소: 5층 마리아홀
 - 만 75세(1942년 이전) 9월 26일 부터
 - 만 65세(1952년 이전) 10월 12일 부터
 * 공휴일과 10월 2~5일, 9일은 접종하지 않습니다. **메리놀병원**

가톨릭신문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사진, 감성에 디자인하다.
사진 교실 초급반 개강
 개강: 10월 14일(목) 19:00~21:00(매주 수)
 강사: 최경현 (사진작가)
 과정: 15회 과정 / 수강료: 20만원
 접수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주) 씨피여행사
 1. 1/2 이스라엘, 이태리 11일 455만원
 2. 4/15 스페인도보100순례 13일 325만원
 3. 4/23 스페인 일주, 루르드 13일 406만원
 4. 4/26 이스라엘 성지순례 9일 375만원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

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오두중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오두중(요한)
805-0200
 카톡상담 ID: 오두중성형외과
 서면 주디스대화 맞은편 우리은행 5층

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
협성주단·한복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층 안쪽)
646-1123
010-3594-2137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정/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서울성형외과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국내 최대의 성형외과 그룹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정형(T.아퀴나스)
 http://seoulps.co.kr
818-3131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앞

혼례청 **교우 10% DC**
 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
 서구식, 야의,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
 구청,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
 서정자(마르타) **807-2025**
 http://www.honre.com(총렬사 입구)

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 관 현(시몬) 최 상 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

(주)온누리투어
 3박 5일로 떠나는 성지순례길
매주 1회 부산 출발
 북부 베트남(하롱베이 일정 포함)
 남부 베트남(다낭 일정 포함)
 캄보디아 프놈펜(앙코르와트 일정 포함)
853-1333, 010-4843-4020

삼진 커튼
 수입커튼, 완제품커튼,
 우드브라인트, 폼비브라인트
 이 영 복(요셉) · 김 미 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11/17 독일통일기념&성요한바오로
 2세 고향순례 경비: 365만원
 11/23 남유럽&북아프리카 크루즈성지순례
 경비: 내륙 588, 오션뷰 578, 발코니 598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10.6(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파티마 성모발현 100주년 기념 피정

· 10.21(토) 10:00~16:00 ※ 파티마 영화 상영
· 마리아 피정 센터(동향성당 옆)
문의 : 634-4845, 010-9620-4820(부산 마리아학교)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 10.9(월) 13:00 마리아피정센터
대상 : 티없으신성심에 대한 봉헌생활을 원하는 신자
문의 : 010-6764-3746(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성골롬반 평신도선교(해외) 관심자 모임

· 10.8(일) 14:00~17:00 · 평신도선교사센터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도보 5분)
문의 : 010-5003-5628, cmlkorea@gmail.com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2018.4.23(월)~5.5(토) · 서유럽성모성지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 청소년, 성인, 부부(비신자 포함)
내용 :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 홍영미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 1급)
상담 : 수~토 10:00~17:00 / 문의 : 581-3114

노인복지주택 흰돌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신축 20평형 입주 신청 중(기존 17/25/34평형)
대상 :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부부(또는 단독) - 의료, 건강서비스 및 취미활동 지원
매일 10:00~17:00 전화, 방문 상담 가능(휴무일 없음) / 문의 : 758-6231, 010-5574-6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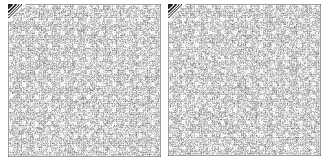
성경 기록한 독서 피정

· 10.7~8, 10.14~15, 10.21~22, 10.28~29, 11.25~26, 12.9~10, 12.16~17, 12.23~24, 12.30~31 토 14:00~일 16:00 / 피정비 : 5만원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신부 / 문의 : 010-2816-1986

한티순교성지 피정

주제 : 우리시대 웰빙과 힐링(힐링피정)
· 10.14(토) 16:00~15(일) 13:00
강사 : 김정우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문의 : (054)975-515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10.13~15, 12.1~3 시작 17:30
10.16~20, 10.16~24, 11.20~24, 12.26~1.3 시작 14:00
이나시오 영성수련 : 10.16(월)~24(화) 시작 14:00
내적여정 에니어그램(기분1,2과정)
: 10.13(금)~15(일) 시작 15:00

제주 먼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 역사 ·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트레킹
· 10.13~16(추주도), 10.19~21, 10.29~31
11.5~7, 11.11~13, 11.19~22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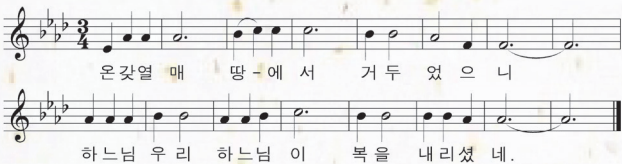
10.8~10, 10.17~20, 10.25~27, 11.14~17, 11.23~25 / 대상 : 개인, 가족, 분당, 단체 등
내용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문의 : (064)796-9181

한가위

제1독서 요엘 예언서 2, 22~24, 26ㄱ~ㄷ

화답송 시편 67(66), 2와 4ㄱ, 5ㄷ과 6, 7~8 (◎ 7)

◎ 온갓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1.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2.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3. 온갓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4, 13~16

복음환호송 시편 126(125), 6

◎ 알렐루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루카 12, 15~21

영성체송 시편 104(103), 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비목집
강원도 덕장에서 애풍으로 말린
코다리찜 개시
코다리찜, 묵살러드, 묵채
1인분 11,000원(2인 이상)
* 묵 요리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가마트 정문 옆, 주차원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상사
대표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세리즈, QM세리즈)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모니카주단 · 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전문
황 위 식(레오) 김 필 분(모니카)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152호(1층 4호문 중간)

내일N성형외과
최수종(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백련병원 2층) / 서구청 옆
부산권초계조화가.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자, 일반90%혜택)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이삿집은
우리트랜스로
582-1414
010-4042-8662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 변성만(요한) · 권명숙(로사리아)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라파엘여행사
10/19, 23 산티아고 도보순례 14일 389만원
10/24 발칸, 크로아티아 11일 359만원
12/15 중남미 17일 1150만원
1/30 이스라엘 9일 359만원
성지순례 **(02)778-8565**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글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